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0

2013 <http://www.ucac.or.kr>

울산시립합창단 제85회 정기연주회

MOZART'S OPERA
DIE ZAUBERFLÖTE

해설이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2013. 10. 11(금) 오후 8시
10. 12(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구 천 연출 박미애 해설 서재경 출연 울산시립합창단, 과르뎃 쉘 앙상블

전석 1만원, 회관 회원 30% 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문의 <http://www.ucac.or.kr> Tel. 275-9623-8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 O / N / T / E / N / T / S



04 기획공연 | 어린이 뮤지컬 “브루미즈”
모닝 콘서트

08 울산시립예술단 공연 | 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시립교향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시립교향악단 청소년 음악회
시립교향악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18 기획전시 | 아외 조각전
올해의 작가 10월 - 양희숙

22 예술을 말하다 | 예술축제를 찾아서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IV)
마음의 힐링 -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 공연·전시가이드 | 10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10월호 통권 168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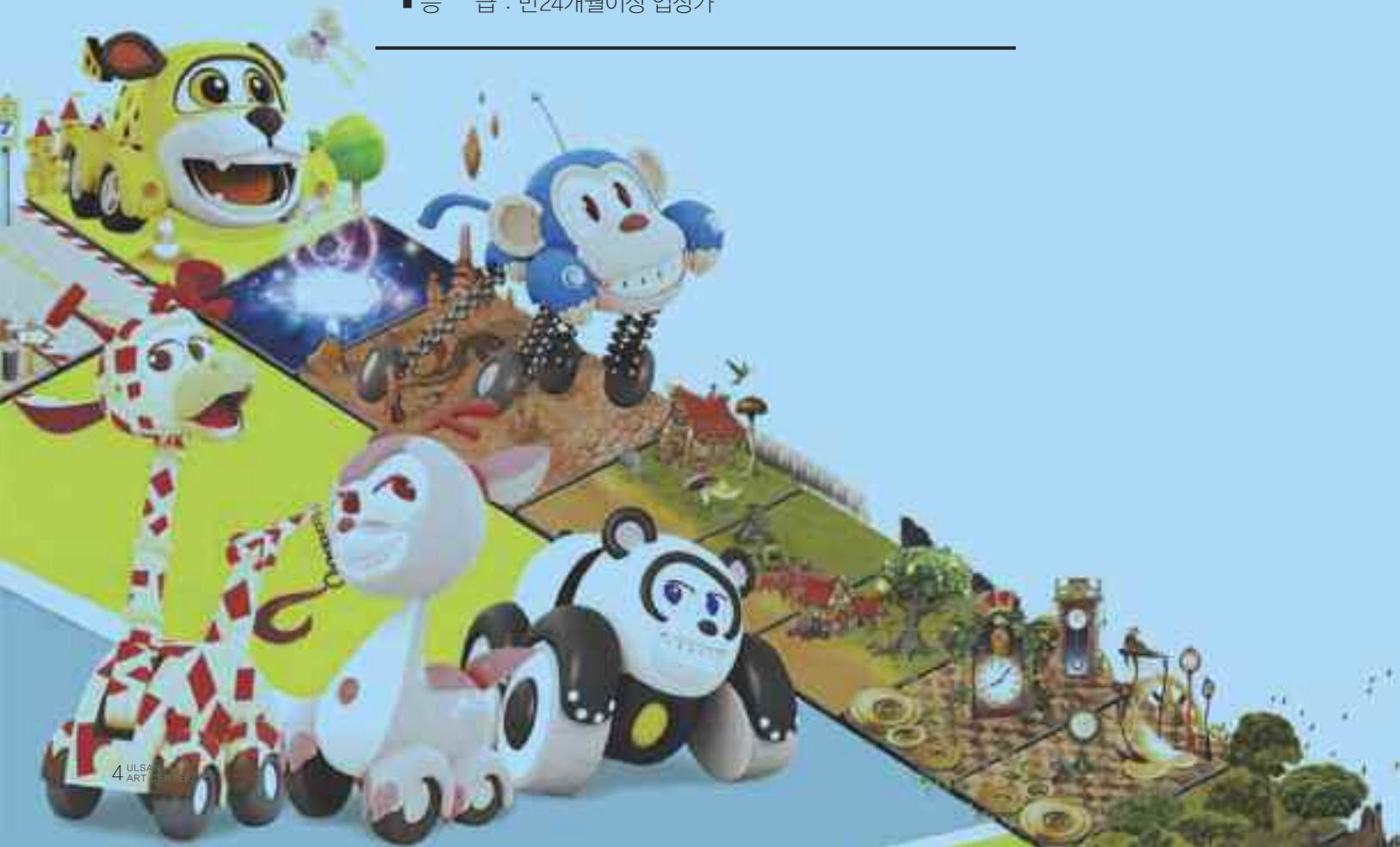
편집 |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EBS 어린이뮤지컬 브루미즈™

2013. 10. 19(토) ~ 20(일) 오전11시 / 오후2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 최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 입 장 권 : 전석 1만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공연예매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등 급 : 만24개월이상 입장가



1

눈 앞에 펼쳐지는 신비한 디지털 영상무대!

환상적인 디지털 영상 기술과 수준 높은 무대 기술의 완벽한 조합!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디지털 뮤지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EBS 시청률 1위! 부릉 부릉 브루미즈! 뮤지컬로 탄생!

EBS 최고의 화제작 브루미즈를 뮤지컬로 만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
살아 움직이는 신기한 동물 자동차 브루미즈를 눈 앞에서 만나요!

3

올 여름방학! 브루미즈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엄마 아빠 손잡고! 올 여름방학! 브루미즈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요!
함께 떠나는 신나는 모험 길에서 리더십과 상상력이 자라나요!



브루미즈™ Character

안녕! 브루미즈 친구들



스피더

SPEEDER

리더십과 동기,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브루미즈의 리더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며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뛰어나답니다.



페리

FARRAH

포아 아가씨 때라는 항상 예의 바르고 주의력이 깊고 논리적이예요. 예쁘게 치장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피피

P.T.

힘이 센 피피는 자신의 육종한 몸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느리고 게으르기도 해요. 신나거나 걱정이 생기면 트림을 해요.



뽀뽀

BUNGI

막심맛고 장난 꾸러기인 뽀뽀는 상상력이 뛰어나요. 겁도 없지만 민내심도 없어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예요.



제리

GERRY

순진하고 신민한 여름생 같은 제리는 겁도 많고 머수룩에서 뽀뽀의 장난에 잘 속지만 내면은 아주 강합니다. 도깨 부르는 걸 좋아해요.



Morning Concert Season 6.

“우리 허락해 주세요”

2013 10월 모닝콘서트 가족 오페레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가족 오페레타
실력있는 성악가들의 아름답고 깊이 있는 목소리와 더불어 재치 넘치는 연기까지!
처음부터 막이 내릴 때 까지! 시종일관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안겨주는 오페레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 <라보엠> 등
잘 알려진 오페라와 뮤지컬 넘버들을 유쾌한 스토리 속에서 감상하는 공연

SYNOPSIS...

중년에 들어선 민형과 지현은 보기도물게 금슬 좋은 부부이다.
그들의 무남독녀 주희는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아가씨다. 어느 겨울 주희는 우연히 알게된 남훈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둘은 주희의 부모님께 인사
를 드리러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 소프라노 이 지 현

-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태리 MANTOVA "LUCIO CAMPIONI" 국립음악원 수석졸업
- 이태리 "MILANO" 시립음악원 전문 연주자과정 졸업
- 이태리 "ORFEO PARMA ACCADEMIA" (DIPLOMA) 졸업
- 이태리 "GIULIETTA SIMONATO" 국제 성악 콩쿨 1위
- 이태리 "FRANCESCO FORGIONE" 국제 성악 콩쿨 1위
- 이태리 "GIANNIO ZECCA" 국제 성악 콩쿨 1위
- 이태리 "CAMILLO DE NARDIS" 국제 성악 콩쿨 2위
- 이태리 "PORANA LIRICA DI VOGHERA" 국제 성악 콩쿨 2위 & 관객 특별상
- 이태리 "PRINCIPESSA CRISTINA DI TRIVULZIO DI BELGIOIOSO" 국제 성악 콩쿨 2위
- 이태리 "MAGDA OLIVERO" 국제 성악 콩쿨 특별상
- G.ROSSINI "세빌리아의 이발사" ROSINA 주역출연
- 국제 공연 예술제 현대음악극 "ECHO" 소녀 역 출연



• 소프라노 손 주 희

-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 이탈리아 프랑코 비따디니 국립음악원 성악과 수석 입학,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음악코치과 졸업
- 이탈리아 파비아 프라스카니 극장, 메데 보조스트리 극장등 이탈리아 주요 극장에서 활동
- 오페라 피가로의결혼, 마술피리, 사랑의묘약 출연
- 현 가톨릭대학교 출강



• 바리톤 김 민 형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음악학 학사
-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비엔노(최고과정) 가곡과 졸업
- 2012년 이태리 로마 Chiesa Martiri Coreani 바리톤 김민형 독창회 개최
- 2008년 이태리 로마 Chiesa di Sant'Ignazio "G. Puccini" Messa di Gloria 독창자 출연
- 1998. 06 마산음악협회 주최 전국 학생음악 경연대회 성악 1위
- 2011. 08 "발레리아 마르띠나" 국제 음악 콩쿨 성악 1위



• 테너 김 남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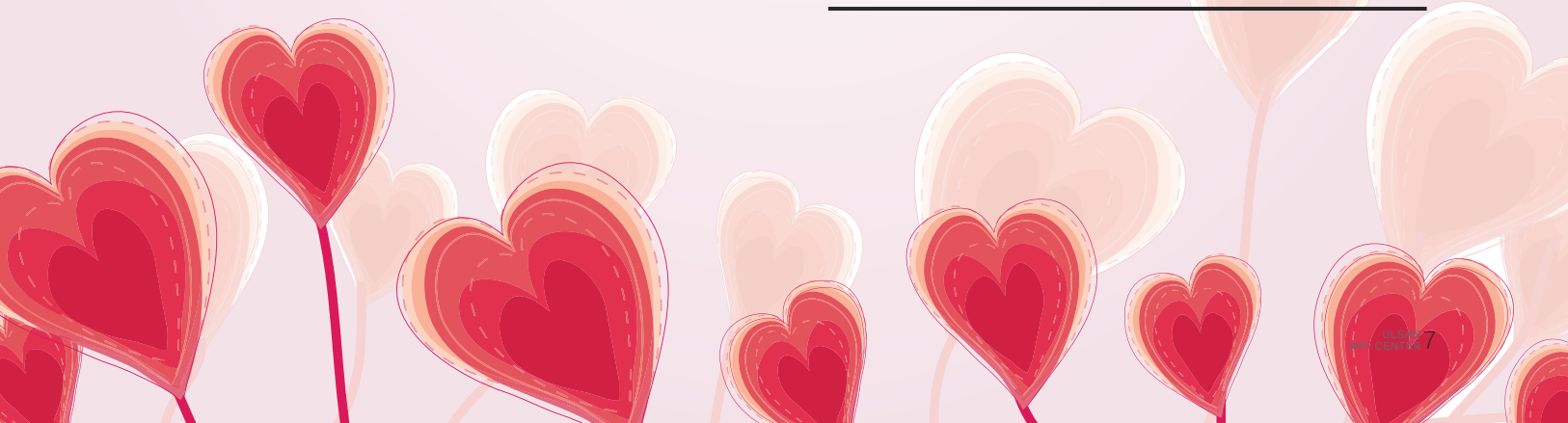
- B.Maderna 국립음악원 졸업
- Locate지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쿨에서듀엣부문 2위 입상
- Torino 지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쿨에서 싱글 부문 3위 입상
- Grosseto 지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쿨에서 1위 우승
- 2013년에 이탈리아 Milano에 두오모 바로 옆에 위치한 San babila 오페라 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La Boheme 공연 예정

● 프로그램

- All I Ask of You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 O Soave Fanciulla - 오페라 라보엠
- The Snow - 가곡 김효근곡
- 축배의 노래 -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 O Mio Babbino Caro - 오페라 <잔니스키키>
- Quando Men'vo - 오페라 라보엠

2013.10. 24(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연진 : 소프라노 - 이지현, 손주희
테너 - 김남훈
바리톤 - 김민형
피아노 - 김은혜
- 입장권 : 전석 7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MOZART' S OPERA

Die Zauberflöte

해설이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 유수의 걸작 오페라와는 달리 제작 의도부터 극의 구조와 음악 구성 등이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술피리'는 현재에도 많은 음악단체에서 단골메뉴로 연주되고 있다.

울산시립합창단에서 제85회 정기연주회로 준비하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2012년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시리즈이다.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서재경씨를 해설자로 그리고 광주 빛소리 오페라단에서 상임연출을 맡고 있는 박미애 교수가 연출을 맡아 대본과 무대장치, 의상, 조명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2013.10. 11(금) 오후 8시 / 10. 12(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예술감독 및 지휘 : 구 천
- 연 출 : 박미애(빛소리 오페라단 상임 연출)
- 해 설 : 서재경(영화 배우)
- 출 연 : 울산시립합창단
- 반 주 : 콰르텟 쉘 앙상블
- 입장권 :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

MOZART'S OPERA DIE ZAUBERFLÖTE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오페라 '마술피리'

전문해설자와 함께하는 오리지널 원곡 오페라 마술피리
울산시립합창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격이 다른 오페라의 진수

* 미천한 마동은 입장이 불가한 공연입니다.

출연진



예술감독 겸 지휘자
구철



연출 박미애



허설 서재경



연주 콰르텟 조양상블

10.11 CAST



자라스트로
서벌철



타미노
정선윤



밤의 여왕
김성아(수석)



파파게노
김정상



시녀 1
김희정(차석)



시녀 2
김은혜(수석)



시녀 3
정연실



파파게노
이병웅(차석)



파파게나
전세정



모노스타토스
김정권



천사 1
정희정



천사 2
배선희



천사 3
홍임정



사제 1
김응근



사제 2
박광훈

10.12 CAST



자라스트로
황성진



타미노
정규현(수석)



밤의 여왕
김나정



파파네
김미정



시녀 1
김수미



시녀 2
정지윤(차석)



시녀 3
김예령



파파게노
이병웅(차석)



파파게나
박인경



모노스타토스
배수완(차석)



천사 1
김은정



천사 2
김은혜



천사 3
최현정



사제 1
김응근



사제 2
배영철



제168회 정기연주회

名作 VI ‘베토벤 교향곡 4번’

울산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곡가 베토벤 시리즈로 작년 11월 베토벤 7번에 이어 베토벤 4번이 연주되어짐. 베토벤 4번은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표제가 없는 교향곡이다.

이번 협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김태형으로 프랑스국립오케스트라, 벨기에국립오케스트라, 도쿄심포닉, KBS교향악단 등 이미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프로그램

- 스트라빈스키 : 발레 “플치넬라” 조곡 중
- 슈 만 : 피아노 협주곡
- 베토벤 : 교향곡 제4번



스트라빈스키 발레“ 플치넬라”조곡

리듬과 관현악 편성에 있어서 20세기의 프리즘을 통해 본 18세기 음악이라는 재치 넘치는 접근을 시도하는 ‘플치넬라’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작품이다. 레오니드 마신의 시나리오 또한 16세기 이탈리아의 즉흥 가면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끌어와 만든 것으로 흘러간 옛것을 되돌아 보는 듯하다. 디아길레프는 페르골레시의 일부 음악 작품에 어울리는 관현악 편성을 원했다. 그의 이러한 제안이 ‘플치넬라’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트라빈스키는 처음에는 마지못해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그것을 보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더 나아가 페르골레시가 지은 작품을 재작곡하여 명백히 20세기적 냄새를 풍기는 음악으로 탈바꿈 시켰다. 스트라빈스키는 “플치넬라”가 정말 놀라운 것은 원래의 작품에서 그다지 더해진 것도, 바뀐 것도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작품의 리듬은 뚜렷한 근대적 성향을 띤다.

슈만 : 피아노 협주곡

슈만의 최대 걸작인 이 협주곡은 처음에 따로따로 작곡한 것을 후에 합쳐 하나로 만들었다. 제1악장은 31세 때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으로 작곡하였고 4년 후인 1845년 봄에 멘델스존의 협주곡을 듣고 이 환상곡으로 협주곡을 만들 생각을 가졌다. 그 해 5월 드레스덴에서 2개의 악장을 작곡하여 협주곡으로 완성시켰다. 고도의 피아노 기교를 요하는 이 작품은 1847년 1월에 슈만의 지휘하에 클라라의 피아노 독주로 초연되었다. 이 곡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에 환상적이며 내성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했는데, 탁월한 기법에 낭만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일품이다. 고도의 연주 기술과 풍부한 인간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협주곡이다.

제 1악장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

처음에 정열적이고 힘찬 서주를 피아노가 연주한다. 전체적으로 극적이고 서정적이며 환희에 차 있다.

제1테마가 카덴차풍으로 피아노에 의해 연주 되고 그 후 오보에 의해 극히 서정적으로 애수에 찬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된다. 그 뒤에 피아노가 옥타브 위에서 이 멜로디를 반복하는데, 멜로디가 나타나자 오케스트라가 웅숭음치듯 테마를 연주한다. 제 2테마는 이 테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클라리넷으로 연주된다. 발선부와 재현부를 거쳐 카덴차가 연주된 후 코다로 들어가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제2악장 자유로운 가요 형식.

슈만의 독특한 면이 나타난, 친밀감을 주는 아름다운 정서를 지닌 악장이다. 친밀감을 주는 아름다운 정서를 지닌 악장이다. 악장의 전후가 대담하고 열렬하며 극적인 정취와 절묘한 대조를 보이는 악장이다. 아름다운 목가풍의 분위기가 넘치는데, 현악기와 피아노의 미묘한 문답으로 시작되며 중간부에서는 첼로가 주가 되어 선율을 연주한다.

제3악장 소나타 형식

환희에 넘치는 빛나는 종곡이다. 오케스트라의 서주에 이어 제 1 테마가 피아노로 연주된다. 제2테마는 현악기와 피아노로 제시되는데, 특성있는 리듬을 지니고 있다. 감명 깊은 테마로 극적인 효과가 있다. 화려한 악구는 오케스트라에 연결되어 피아노로 연주되는데, 슈만의 정열과 우아함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베토벤 : 교향곡 제4번

1806년 그가 36세 때의 작품인데 그의 일생중 가장 조용한 시기의 작품이다. 베토벤 교향곡의 작품 번호 중 홀수를 투쟁적인 작품이라 하고 짝수를 평화로운 작품이라 말하는 이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듯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은 제3번과 5번에 비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그러기에 슈만은 말하기를 이것은 북부 유럽의 신화에 나타나는 2인의 거인 사이에 끼인 그리스의 미녀라고 했다.

제 1악장 아다지오 - 알레그로- 바바체 Bb장조 2/2박자 소나타 형식

조용하고 신비스런 서주부 를 지나 주부로 들어가면 빠른 템포의 활발한 환희에 넘치는 악장이 전개된다. 대단히 리드미컬 한 움직임으로 진행되는데 단축된 재현부의 화려한 코다에서 화려하게 끝난다.

제2악장 아다지오 Eb장조3/4 박자. 소나타 형식

아름답고 맑은 멜로디가 조용하게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품위있는 숭고한 감명을 주는 악장이다. 멜로디는 제1 바이올린에 나타나며 제2테마는 클라리넷에 의해 연주되어 매혹적인 감명을 준다.

제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Bb장조 3/4박자. 스케르초형식이다.

그의 성격의 특성이라 할 만한 익살스런 면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다. 자유분방하게 전개되는 힘찬 악장이다

제4악장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 Bb장조 2/4박자.

빠른 템포의 소나타 형식으로 된 현란하고경쾌한 면을 높은 경지에 도달시킨 악장이다. 발랄하고 용솨음치는 기쁨에 찬 무드가 코다로 끝난다.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태형은 2004년 제21회 포르투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에 입상함과 동시에 베토벤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음악계에 등장했다.

같은 해, 베오그라드쥬네스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에 오른 이후, 하마마쓰 국제피아노콩쿠르(2006), 롱-티보 국제콩쿠르(2007)등에서 입상하였으며, 2008년 인터라켄클래식스 국제음악콩쿠르와 모로코국제음악콩쿠르, 프랑스 그랑프리아니마토 음악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하는 놀라운 성적을 이뤄냈다.

역시 같은 해 서울국제음악콩쿠르(구.동아국제음악콩쿠르)에 입상했으며 2010년 세계3대콩쿠르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벨기에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의 5위 입상은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김태형을 알리며 그의 연주커리어의 분수령이 된다. 협연경력으로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로얄왈로니체임버오케스트라, 베오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키오이신포니에타 도쿄, 포르투갈 국립오케스트라, 모로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관현악단과 협연했으며 KBS 교향악단,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천시향, 대전시향, 원주시향, 서울바로크 합주단 등 국내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독주회연주이력으로 2011년 브뤼헤 SCOOP 콘서트 시리즈, 메헬렌, 코르트릭 '플랑드르 축제' 초청 독주회(벨기에)를 포함, 일본 이시카와 펠로우십 콘서트, 프랑스 알프레드 코르토홀 초청 독주회, 이탈리아 플로렌스 국제음악페스티벌 초청 독주회, 포르투갈 포르투 4회 순회 독주회, 독일 유로뮤직 페스티벌 오프닝 연주(독일 게반트 하우스)를 했으며 국내에서는 금호영재 콘서트, 금호 라이징스타 시리즈, 국제교류재단 송년 콘서트, 호암아트홀 라이징스타 시리즈, 야마하 아티스트 시리즈 등에 초청되어 무대에 올랐다. 실내악에도 깊은 조예와 열정으로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스프링 페스티벌 및 코스타리카 크레도 마티크 음악 페스티벌을 포함 여러 저명한 실내악 축제에서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교통상부의 초청으로 스위스 UN 본부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실내악 연주투어를 했으며 2011년, 역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노부스과르뎃과 함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에서 해외 순회 공연을 가지는 등 독주 활동과 더불어 왕성한 실내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예고를 수석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충모를 사사했으며 독일 뮌헨 국립 음대에서 엘리소비르 살라체의 지도 아래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동 대학에서 헬무트 도이치의 사사로 성악가곡반주(Liedgestaltung)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08년부터 대원문화재단에서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로 건너가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명 피아니스트 엘리소비르 살라체를 사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유럽 매니지먼트사인 바인슈타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Weinstadt Artists Management)의 소속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발한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Pianist : 김태형(Tae-Hyung Kim)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2013. 10. 17(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피아니스트 김태형
- 입장권 : R석/1만원 · S석/7천원
A석/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울산시립교향악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의 합동공연

미술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빈센트 반 고흐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공동주최하는 청소년음악회로서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의 협조로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대 공연임.

클래식 악기로 표현되는 실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유발과 학과 공부로 지친학생들에게 에너지 재충전의기회제공.



* 지휘 / 김종규

● 프로그램

- 주페 / 시인과 농부
- 해 설
- 비제 /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1번 L'Arlesienne Suite No.1
1곡. 프렐류드 Prelude / 2곡. 미뉴엣 Menuet
- 해 설
- 비제 /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1번
3곡. 아다지엠토 Adagietto / 4곡. 카리옹 Carillon
- 해 설
- 비제 /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1곡. 파스토랄레 pastorale / 2곡. 인터멧조 Intemezzo
- 해 설
- 비제 /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3곡. 미뉴엣 Menuet / 4곡. 파랑돌 Faraldole
- 해 설
- 엘가 / 위풍당당행진곡 1번

2013. 10. 23(수)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 휘 : 김종규(부지휘자)
- 해 설 : 하진욱
- 입장권 : 초대
- 주 최 : 울산문화예술회관, 롯데삼동복지재단
- 연 계 : 울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
- 등 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

제169회 정기연주회

드보르 작 교향곡 8번

시민들에게 가장 귀에 익은 드보르 작 신세계 교향곡과 함께 가장 사랑받고 활발하게 연주되어지는 교향곡 8번을 가천대학교 (구.경원대학)교수로 제직중인 김 봉 교수와 함께 연주한다.

이번 협연은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KBS교향악단 등 이미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M.Bruch

브루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만한 이협주곡은 그가 19세 때부터 시작하여 9년 이란 세월이 걸려서 완성되었다. 그는 3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였지만 1번 g단조 외에는 별로 연주되지 않는다.

브루흐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달콤한 멜로디는 자유스런 형식 과 수성 등으로 누구나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후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g단조 4/4박자 소나타 형식

처음에 오케스트라로 조용하게 연주하는 서주부가 있는 후 독주 바이올린의 자유롭고 정열적인 서창품의 멜로디로 시작한다. 바이올린의 호화롭고 힘찬 제1주제가 지난 후 제2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악기군과 아름다운 대위형식으로 전개된다. 이것이 여러 갈래로 발전하다가 재현부를 거쳐 조영한 분위기속에서 그대로 제2악장으로 넘어가 연주된다.



제2악장 아다지오 Eb 장조 3/8박자 가요형식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달콤한 멜로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 나타나는데 참으로 마음을 매혹시킬 만한 선율이면서도 장중한 맛이 있다.

제3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G장조 2/2박자 소나타 형식

관현악의 화음에 따라 제1테마의 편모가 제1바이올린과 목관악기에 의해 나타난다. 여기서 독주 바이올린은 정열적이고 힘찬 제1주제를 집시풍의 선율과 리듬으로 암시한다. 이것들이 미묘하게 전개되다가 마침내 현란한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끝난다.

Symphony no.8 in G major A.Dvorak

드보르작 교향곡 중에서 9번 신세계 교향곡에 이어 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이미 국제적인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던 드보르작은 성공적인 영국여행을 마친후 귀국 하여 그동안 꿈꿔왔던, 언덕과 수풀에 둘러싸인, 보헤미안의 비소카 의 소박한 전원주택의 음악실에서 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체코적인 곡인 G장조 교향곡 8번을 작곡했다.

교향곡 8번은 가끔 ‘영국 교향곡’으로도 불리는데 , 사실 곡의 분위기나 주제는 영국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당시 드보르작은 베를린의 출판가와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그의 곡들 상당수를 런던의 노벨로에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후에 “The English” 라는 부제가 달리게 되는 8번 교향곡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이 교향곡에 ”영국“ 이라는 부제가 붙게 된 것이다. 드보르작은 영국에서 매우 유명했었고 1891년 6월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었는데 그는 논문을 제출하는 대신, 학위수여식에서 이 G장조 교향곡을 지휘했다. 그는 또한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체코의 날에 이 교향곡을 지휘하기도 했다.

8번 교향곡은 활기찬 분위기의, 드보르작이 사랑했던 보헤미안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곡이다. 비록 종종 신세계교향곡 의 유명세에 가리기도 하지만, 보헤미아의 시골길을 산책하는 듯한 이작품은, 낙천적인 19세기 후반의 교향곡 작곡의 최고봉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이전의 소나타 형식을 벗어나 주제들이 자발적인 흐름을 보이는 듯한 방식을 보여준다.

● 프로그램

- Rieni overture
R.Wagner
- 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M.Bruch
- Symphony no.8 in G major
A.Dvorak

2013. 10. 31(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 휘 : 김 봉
- 협 연 :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 출 연 : 울산시립교향악단
- 입장권 : R석/1만원 · S석/7천원
A석/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인 김봉 교수(가천대 음대 - 구 경원대)는 각 장르별 음악적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지휘자로 잘알려져있다. 이러한 그의 뛰어난 음악성은 일찍이 첼리스트로 활약할 때부터 그의 연주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대 음대 재학 시절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콩쿠르인 동아, 중앙콩쿠르의 첼로부문을 석권한 그는 졸업 후 독일 데트몰트 음대에서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인 앙드레 나바라교수에게 수학하였으며, 귀국 후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등 한국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첼로수석을 역임하였다. 1988년 경원대 교수로 취임 후 시작된 그의 지휘역정은 1992년 뉴서울필하모니를 스스로 창단하여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며 본격화 되었으며, 이를 전환점으로 성공한 첼로연주자의 명성을 넘어 걸출한 지휘자로 재탄생 하였다. 그의 지휘경력은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함으로써 그 빛을 더해갔다. 즉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코리아심포니, 수원시향, 대전시향, 서울심포니, 전주시향, 춘천시향, 서울오케스트라, 코리아안팎스오케스트라 등 국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음은 물론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의 하이든페스티벌 초청 헝가리 기외르필하모니, 폴란드 울스탄국립교향악단, 미국 LA뮤직센터에서 샌디에이고필하모니 등을 객원지휘 또 미국, 유럽을 순회 연주하였다.

2006년 루마니아 크라이오바필하모니의 초청지휘를 포함, 2007, 2008년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초청지휘자, 2009년 독일 빌레펠트필하모니,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 초청지휘 등 국내외 무대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해온 그는 한국비평가협회 제정 2010 서울음악대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원전에 충실한 탁월한 곡해석, 정확하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음악표현은 다양한 음악회, 공연을 통해 많은 관객들에게 벽찬 감동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연주자, 동료음악인들이 그를 진정한 마에스트로로 손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에 국내외 많은 음악제, 창작음악회에서 작곡자, 기악연주자, 성악가들이 함께 연주하고 싶은 최고의 지휘자로 그 이름이 높다.

2007년 성남시립교향악단의 2대 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그는 창단이후 정체기에 빠져있던 성남시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연주력을 단숨에 끌어올려 다시 한 번 그의 지휘능력과 오케스트라 경영능력을 발휘하였으며, 그의 취임 이후 성남시향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 개발과 국내외의 훌륭한 기악연주자, 성악가들을 초청하여 성남시민에게 클래식음악의 즐거움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2010년을 끝으로 성남시향의 임기를 마친 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국내외 무대를 향해 폭넓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는 서울예고를 거쳐 Helena Rubinstein Scholarship으로 메네스 음대, 대학원에서 헬릭스 갈리미어 (Felix Galimir)를 사사하였다. 재학 중 한국일보, 동아일보 콩쿨, 도미 후에는 메네스 콩쿨 및 워싱턴 국제콩쿨 등에 입상하였고, 탕글우드, 말보로, 키리시마 음악제를 비롯하여 96년 베를린 윤이상 추모음악제와 98년 평양 윤이상 음악제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피터 와일리, 스승 헬릭스 갈리미어 등과 Musicians from Marlboro 시리즈에 초청되어 미국 순회 연주를 가졌으며, 브란덴부르크, 뉴욕 스트링앙상블 (Alexander Schneider 지휘)과 연주하였고, 2000년과 2002년 미국 The Quartet Program (Director, Charles Castleman)에 실내악 코치로 초청되어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KBS홀 개관기념연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실내악축제, 재개관 기념연주, 제야 음악회, 충무아트홀 개관기념연주, 이견음악회 등 수많은 연주 무대에 섰으며 부천시향, KBS 교향악단, 코리아 심포니, 수원시향, 광주시향, 마산시향, 원주시향, 청주시향, 제주시향, 목포시향, 진주시향, 충남 시향, 울산 시향 및 포항 시향 등 다수의 교향악단과 협연하였다.

1991년 창단한 현악4중주단 Quartet 21 과 베토벤 현악4중주 전곡시리즈, 바르톡 현악4중주 완주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진행중이며 1992년 제1회 예음상 (실내악 부문) 과 2006년 올해의 예술상 (실내악 부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2008년에는 제3회 대원음악상 연주상을 수상하였다. 브람스 소나타전곡연주, W. Bolcom, A. Beach의 작품등을 한국 초연하는 등 활발한 독주 활동을 비롯해 KBS 한국의 연주가 CD, 스킨 바이올린 교본 전집 CD 등을 발간하였고, 부천시향 악장을 역임한 후 현재 Quartet 21의 멤버로 가천대 (구. 경원대)교수로 재직 중이다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Ⅲ부

문화예술회관의 야외전시장이 새로운 작품으로 단장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예술의 숲 일원에서 마련해 왔던 야외조각 전시를 올해부터 연중 상설전시로 확대추진하면서 부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울산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조각가협회 회원 21명의 다양한 야외조각 작품 42점을 총 3부에 걸쳐 선보이고 있다.

10월 1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열리는 제Ⅲ부 전시에는 김현호, 도태근, 유현우, 이인행, 이종용, 조민길, 황미옥 작가의 작품 14점이 전시된다.

김현호 작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을 구부리고, 붉은색을 덧입혀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철작업을 선보이는 도태근 작가는 기하학적인 공간 속에 자르고, 접고, 붙이고, 두들겨서 만들어진 형상을 매달아 철 다양한 속성과 공간과의 관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유현우 작가는 화강석과 대리석을 이용, 때로는 매끈하고 정교하게 연마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의 조각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 석조 조각의 다양한 기법을 보여준다.



• 김현호 작 <현대인-공존>



• 도태근 작 <Position-Form I>



• 유현우 작 <흔 적>

이인행 작가의 작품은 부드럽게 연마한 돌에 조명을 가미하여 낮보다 밤에 더욱 운치있는 풍경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용 작가는 무거운 석조를 사용하지만, 동심을 담은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남녀노소 모든 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석조를 사용하는 조민길 작가는 인체를 단순화한 형상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길 권한다.

황미옥 작가는 대형 테라코타 작품을 선보인다. 석조와 철조 등을 깎고, 다듬고, 잘라서 만드는 작품과 달리 흙을 빚고 열을 가해서 만드는 테라코타 작품을 야외에서 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잔잔한 음악과 조각 작품이 만나 만들어 낼 도심 속의 열린 문화공간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란다.



• 이인행 작 <도심-품>



• 이종용 작 <속삭임>



• 조민길 작 <꿈-비상>



• 황미옥 작 <고성(古城)>

2013. 10. 11 ~ 2014. 2. 2
115일간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 초대작가 : 김현호(부산), 도태근(부산), 유현우(울산), 이인행(울산), 이종용(전북), 조민길(부산), 황미옥(전북)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양희숙 작 <회(回) 그사이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 유망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작가를 선정, 옥내 주차장에서 당직실로 이어지는 열린 상설전시 공간 “갤러리 쉽”에서 「올해의 작가 개인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합동 전시를 개최하고 이후 7월부터는 참여 작가 6명의 개인전이 릴레이 형식으로 열리고 있는데 10월 전시의 주인공은 양희숙 작가이다.

울산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양희숙은 동국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회화와 설치, 사진 등 특정 장르와 재료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조형언어를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히 작가는 주차장과 전시장을 이어주는 통로에 새롭게 조성된 공간으로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공간이면서 또한 독자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부여된 공간인 “갤러리 쉽”의 장소적 특성에 주목하고 “회(回) - 그 사이로”라는 연작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목적지가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실재하는 공간과 심리적 차원에 존재하는 공간 사이에서의 서성임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관람객은 이곳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현실 세계와 예술의 세계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전시장에서 작가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 걸으며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0 월의 작가 - 양희숙展

10. 1(화)~10. 30(수), 30일간
갤러리 쉽



• 10월의 작가 / 양희숙

-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 개인전 4회

■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4회 입상, 울산미술대전 우수상외 각종 공모전 15회 특·입상

■ 그룹전

- 2013. Intra전 (울산 중구 문화거리 / 갤러리 로코코, 갤러리아)
- 2012. 중구 문화거리 윈도우전(중구 문화거리) 김과장 미술관 가다'(문화예술회관, 울산)
- 2011. '지붕없는 미술관' 설치전(신화마을) 현대미술 '정.중.동' 야외설치전(문화예술회관 야외전시장)
- 2010. 일상 숨김없는... (화인갤러리, 부산) 울산미술대전 초대.추천작가전(문화예술회관,울산)
- 2009. 환경미술제(문화예술회관, 울산), 깊이와 넓이(문화예술회관, 울산)
- 2008. 그림, 입원하다(탑텐클리닉, 울산), 한중 교류전(중국)
- 2007. 제1회 태화강 국제 설치전(태화강, 울산)
- 2006. '21세기 시대와 정신'전 (타워갤러리, 부산 / POSCOGallery, 포항) 포항 아트 페스티벌 '빛으로'(문화예술회관, 포항)외 각종 초대. 단체전 180여회
- 현재, 울산미술협회,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울산미술대전 초대작가



• 양희숙 작 <회(回) 그사이로...>



• 양희숙 작 <회(回) 그사이로...>



• 작업중인 양희숙 작가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오페라의 거장 - 리하르트 바그너(IV)

마음의 힐링 -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Part.2 10월의 공연·전시

10월의 공연·전시 일정





황홀함에 잠 못 드는 하얀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축제

요즘 같은 세상에 입국 때 여전히 관광비자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입국심사대는 여느 공항보다 높고,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항 직원은 말 한마디 없이 죽히 5분은 여권과 제 얼굴을 번갈아 살펴봅니다.

이럴 땐 웃어야 하는지, 도대체 어딜 봐야 하는지. 시골 간이역 같은 공항을 빠져나와 오래된 지하철 1호선이 생각나는 버스에 올라타면 어디선가 아주머니가 나타나 손에 든 지폐를 받아들고 휴지조각 같은 승차권과 잔돈을 거슬러 줍니다.

에어컨도 없고, 안내 게시판도 없고. 시내에 도착하면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도처에 운하가 보입니다. 보이는 이 운하는 지도의 어디 즈음일까, 택시도 잡히지 않고, 몇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영어로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길을 헤매고 있자니, 좁전에 말이 안 통해 돌아섰던 현지인이 제 가방을 들고 앞장섭니다. 이건 뭐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뒤를 따르다 보니 의심한 것이 민망하게 어느덧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합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며 하소연을 해보지만, '너처럼 헤매는 상황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간간한 미소가 되돌

아옵니다. 모든 게 낯설고 힘들기만 한 저는 그대로 쓰러져 3시간을 내리 잡니다. 배가 고파 일어나 보니 밤 10시, 그런데 밝은 영락없이 오전 10시 같네요. 그제야 마음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드디어 왔구나, 백야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속의 유럽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식으로 발음해도 어려운 상트페테르부르크, 더 고생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밖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라고 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영어로 표기하면 'Saint Petersburg' 인데요. 피터는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4대 황제인 표트르(Pyotr)의 영어식 발음 'burg' 가 '도시' 를 뜻하니, 이건 딱 봐도 '피터의 도시' 라는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표트르' 를 '삐제르' 로 발음하기 때문에, 도시를 말할 때도 그냥 '삐제르' 라고 줄여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서는 삐제르, 러시아 밖에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말해야 알아들으니 가뜰이나 복잡한 여행자의 머릿속은 도시 이름을 말할 때마다 뒤엉킵니다.

그렇다면 이 표트르(영어식 피터, 러시아식 삐제르)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표트르 1세는 러시아의 2대 황제 알렉세이 1세의 아들로 이복 누나 소피아 공주가 권력을 차지하자 유학차 유럽 각국을 떠돌며 그곳의 '품격' 을 보고 익혔습니다. 귀국 후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모스크바를 떠나 발틱 해 인근 늪지대 위에 그동안 유럽에서 취사선택해온 것들을 적용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운하도시답게 4백 개의 다리로 이어 붙인 삐제르는 1712년 모스크바에서 수도가 옮겨온 이후 2백여 년간 러시아의 전성기를 이끄는데요. 예술적으로는 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문학에 유럽에서 들여온 음악과 무용 등이 러시아만의 새로운 모

습으로 찬란히 꽃을 피우는 그 중심에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왜 가야만 하는가?!

인천공항에서 9시간대에 날아갈 수 있는 곳. 하지만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멀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앞서 말했듯 단순 단기 관광에도 비자가 필요하고, 일주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지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비싼 물가에 여자 혼자 여행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유럽공연기행에서 이곳을 절대 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유럽답기로 소문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문화예술에 빠진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꿈의 도시거든요. 자,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파리에 샹젤리제 거리가 있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넵스키 대로가 있습니다. 궁전 광장부터 4.5km에 이르는 거리로 백화점을 비롯한 주요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 등이 즐비한데요. 그 길 끝에 자리한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예술의 도시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과거 이 도시에서 활동했던 유명 예술가들이 안장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 립스키-코르사코프, 스트라빈스키, 무소르그스키 등 무려 183명의 예술가가 잠들어 있는데요. 덕분에 그곳에 가면 묘지 지도를 따로 구입해 어떤 예술가가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 일일이 대조해보는 여행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들이 잠들기 전에 활동했던 곳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할 때 어김없이 찾게 되는 마린스키 극장 맞은 편에는 콘서트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 립스키-코르사코프,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등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하는 친구들에게 이 콘서트홀은 지금도 자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네바강 위쪽에는 러시아 문학 박물관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푸슈킨과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고골리 등이 남긴 많은 유적들을 만날 수 있습

니다. 푸슈킨과 도스토예프스키는 박물관과 생가 등이 따로 보존돼 있는데요. 아내를 탐낸 남자와의 결투 끝에 젊은 나이에 사망한 애절한 푸슈킨, 고매한 지성을 지녔으나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하철 역명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 곳곳에 자리한 푸슈킨의 수많은 동상에서 빼제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발레'죠. 발레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서양의 발레는 러시아 고전 발레를 기본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황실은 유럽화 정책의 하나로 황실 무용학교를 세우는 등 발레 발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19세기 러시아 발레가 서양 무용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유럽의 뛰어난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러시아로 몰려듭니다. 유럽에서 쇠퇴기에 접어든 발레는 러시아로 넘어가 차이코프스키 등 뛰어난 작곡가들을 만나며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이죠. 덕분에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지금까지 발레의 교과서로 불리는 주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이며, 2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단은 명성대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습니다.



황홀함에 잠 못 드는 하얀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축제2

러시아 역시 여름에는 밤늦도록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해마다 여름밤을 하얗게 수놓는 <백야축제(The Stars of the White Nights)>가 펼쳐지는데요.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수많은 공연장과 야외무대에서 오페라와 발레, 클래식 연주회 등을 심 없이 선보입니다. 백야축제는 지난 1993년, 러시아를 대표하는 마린스키 극장의 예술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Valery Gergiev)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도 세계적인 스타 지휘자이지요. 게르기예프는 처음 백야축제를 기획할 때 '마린스키와 소속 유명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선사하는 음악 선물'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연장, 예술감독, 아티스트, 그리고 도시까지. 완벽하게 스타급만 모인 백야축제는 태생과 함께 이미 히트를 예고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초창기 열흘에 불과했던 축제 기간은 해가 거듭될수록 세계적인 인기를 더하며 백야와 함께 두 달 넘게 빼빼르를 찾는 여행객들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광객이 백야축제를 제대로 즐기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 좌충우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연보기

1.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공연장을 찾는 것은 제법 쉬운 편입니다. 딱 보면 주위 건물과는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연장 찾기는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입니다. 도심 건물들이 모조리 고풍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어디에도 건물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입구를 찾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도를 보며 인근에 도착했다고 해도 실제 공연장 입성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행객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계 공용어라는 영어가 러시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이지 찾아가는 장소마다 저와 같은 입장의 관광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단니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 수 있는 날이 한정돼 있었던 만큼 저는 그야말로 손에 꼽히는 무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마린스키 극장 주변에 잡았는걸요. 공연이 끝나는 밤 10시에도 대낮처럼 밝은 데다 여행지에서 30~40분 걷는 것은 일도 아니니, 공연장을 찾고 티켓만 구하면 저에게는 완벽한 일정이었던 것이죠. 현재 마린스키 극장은 3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극장과 그 뒤편에 새롭게 문을 연 신극장이 있는데, 이들 공연장에서는 주로 오페라와 발레가 공연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로 연주회가 열리는 마린스키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첫날, 저는 마린스키 콘서트홀을 찾아 나섰는데요. 길을 물어 물어 무언가 남달라 보이는 공연장에 도착했지만,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도, 티켓박스에 있는 직원에게 오늘 어떤 공연이 있는지 물어도 불편해 보이는 미소가 돌아올 뿐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서성이고 있자니, 구원처럼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 짧은 영어로 "도와줄까?" 물어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안달이 났던 것을 토해냅니다. "여기가 어디야?" "마린스키 콘서트홀이야." "아, 여기가 콘서트홀이구나! 오늘 공연은 뭐야?" 프로그램을 본 그녀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너 운이 좋다.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데 스메타나, 쇼팽,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곡을 들을 수 있어." "만세, 정말 고마워!" 저는 다시 티켓박스로 달려갔습니다. 돈 내고 티켓 구매 완료? 웬걸요, 티켓을 구하기 위해 저는 두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2.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 장기여행객들이 그렇듯, 저 역시 소소한 것들은 현금으로, 제법 덩치가 나가는 것은 신용카드로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티켓박스에서 신용카드를 건네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되돌려 줍니다. 제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들의 가맹점이 아니라는 것인지,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그녀가 그려준 ATM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몇 년 동안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서 사용했던 국제현금카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계속 에러가 납니다. 별 수 없이 환전소를 찾아 또 다시 달립니다. 그런데 그 많던 환전소가 마린스키 극장 주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거리의 경찰관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아참, 영어가 안 통합니다. 그래도 도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붙든 경찰관이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 근처에는 환전소가 없어. 은행에 가봐.” 은행은 또 어디란 말인가, 이미 오후 7시가 지났는데 영업을 할까? 그렇게 거리를 헤매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딱 포기하고 싶을 때쯤, 정말 기적처럼 은행이 아닐까 싶은 건물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유로를 들어보이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분, 저는 공연장까지 다시 뛰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 처음 마린스키 콘서트홀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저는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후, 러시아에서 공연 보기 정말 어렵다!

3. 아리송한 공연 티켓 구하기! 티켓을 미리 구해서 가지 왜 그리 고생이냐고요? 일단 저는 유럽공연기행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티켓을 예매해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공식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그때그때 마련되는 인기 공연들이 있고, 인터넷에는 없는 좌석을 현지에서는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한국인과 유학생,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연 티켓 예매 시스템을 속 시원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관광객에게는 더 비싼 금액이 책정됩니다. 실제로 마린스키 극장의 같은 좌석이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보다 대형 수수료를 더해도 현지 한국인에게 부탁할 때 저렴했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일 연속 공연을 보았는데요. 환전한 돈을 들고 마린스키 콘서트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티켓박스 앞에서 있던 어떤 할머니에게 표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압포

상인이 싶었는데요. 그런데 좌석이 피아니스트의 손이 고스란히 보이는 무대에서 세 번째 줄의 중앙. 십 만원을 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자리인데 그 티켓에는 단돈 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같은 공연장에 가서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가 다짜고짜 제 팔을 잡고 이끅니다. 영문을 몰라 주저하자, 주위에 있던 중년의 여인이 ‘공짜’라며 같이 가랍니다. 그것은 입석 표였는지 중간에 두 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했지만, 저는 합창석에서 게르그에프의 현란한 손동작을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발레로 유명한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을 찾았는데요. 극장을 찾아가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 길거리에 한참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극장에는 공연이 시작된 지 5분 후에 도착했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공연을 꼭 봐야 한다고 한없이 불쌍한 표정을 지었더니 나비빅타이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 입은 직원이 주위를 살핀 후 종이에 5만원을 적더군요. 제가 현금을 꺼내자 획 낚아채더니 따라 오랍니다. 그리고 티켓도 없이 무대 앞쪽 출입구를 열어줬습니다. 빈자리 아무 곳이나 앉으라는 것이죠. 아,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러시아의 티켓 예매 시스템, 공연마다 티켓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 없지만, 사실 저는 구멍 많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티켓 예매 시스템의 수혜자인 셈이죠 (웃음).

4. 황홀함으로 잠 못 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하얀 밤

올해 백야축제는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공연 관람은 물론이고 음식을 사먹고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당초 5일 일정에서 이틀을 연장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든 고생을 뛰어넘는 희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린스키 극장의 발레 <한 여름 밤의 꿈>, 하처럼 고고한 무용수들의 명품 라인과 발레의

본고장임을 뽐내는 정확한 테크닉에 눈을 땔 수가 없습니다. 마린스키 콘서트홀에서 만난 게르그에프와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로만로프스키는 어떤가요. 이들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트리오라는데요. 게르그에프의 현란한 지휘, 비주얼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로만로프스키의 연주, 어쩐지 솔리스트와 팽팽하게 맞서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까지. 라흐마니노프를 듣는 내내 시시때때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대로 빨려들 듯 한시도 의자에 등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공연예술에 큰 관심이 없는 관광객에게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작품 당 1분씩만 보아도 17년이 걸린다는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고, 250개의 조각상과 분수로 유명한 여름궁전도 빼빼로 외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하를 따라 고풍스런 건물 사이로 유람선을 타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강변에서는 해수욕을 즐기고, 도심에 마련된 공원에서 삼림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거리 곳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노천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지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황홀함으로 하얗게 새운 7월 밤 가장 걱정하며 찾아갔던 러시아는 저에게 가장 강렬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년 백야축제도 5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진정, 또 가고 싶습니다!

클_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이다.



【도판1】블레이크, <뉴턴(Newton)>, 1795/1805년. 종이에 채색판화, 잉크와 수채, 46 × 60 cm, 런던 테이트 브리튼.

윌리엄 블레이크의 <뉴턴>



【도판2】블레이크, <연로하신 분(Ancient of Days)>, 1794년. 에칭과 수채화, 23.3 × 16.8 cm, 런던 국립박물관.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시작된 과학혁명은 17세기 뉴턴의 고전 역학에서 최고조에 오른다. 수학과 실험에 기반을 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이후 과학 분야 뿐 사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이는 18세기 계몽주의의 발달로 이어진다. 이성적 지식과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삼고 종교와 관습, 미신을 벗어나려는 태도는 이후 서구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이를 거스르는 움직임도 항상 있었고, 여러 예술가들의 선구적 작업이 두드러진다.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이 진보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던 시대를 산 예술가이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비하면서도 낭만적인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화가이자 시인, 판화가인 그의 작품은 성경과 자신이 만든 신화, 예언 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개성이 강하고, 전통적 관습을 벗어난 그의 작품은 당시에는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그의 독창적인 상상과 수공예적인 성격이 강한 제작 방식 모두 높게 평가되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그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블레이크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신앙이 돈독했다. 어린 시절부터 접한 성경은 그의 일생에 걸쳐 중요한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정규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문학작품을 읽었고, 학교에 가는 대신 데생과 판화 수업을 받았다. 그는 당시의 관습적인 미술을 거부했는데, 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상상과 환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르네상스적 원근법 체계를 과감히 벗

어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하게 합리와 이성애 중심을 둔, 상상과 비전을 거부하는 당대의 사회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뉴턴〉(도판1)은 당시 사회에 저항하는 블레이크의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당대 과학계의 ‘슈퍼스타’인 뉴턴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누드의 근육질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는 컴퍼스로 자신이 그린 기하학적 도형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고, 두루마리 종이는 그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가 들고 있는 컴퍼스는 블레이크가 앞서 제작한 〈태초의 날들〉(도판2)에 등장한 컴퍼스를 연상시킨다. 흔히 컴퍼스는 원이나 아치를 작도하거나 선분을 분할할 때 쓰이고, 정확함을 상징한다. 중세 이래 컴퍼스를 들고 아직 혼돈 상태인 세상을 작도하는 건축가의 모습으로 창조주를 종종 묘사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도판3).



【도판3】〈건축가로서의 신(God as Architect)〉, 13세기 중반. 필사본, 비엔나 국립도서관.

〈태초의 날들〉에는 백발에 수염이 가득한 이가 암흑 같은 두꺼운 구름 사이를 헤치고 나온 붉은 해에 앉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커다란 컴퍼스를 들고 세상을 마름한다. 이는 사실 성경이 아니라 영국의 시인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Paradise Lost)〉에 묘사된 천지창조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창조주는 암흑 속에서다 황금 컴퍼스로 커다란 원을 그려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블레이크는 〈실낙원〉에 묘사된 창조의 순간을 그렸고,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의 모습을 칭하는 표현을 따서 제목을 붙였다.



파올로치(Eduardo Luigi Paolozzi), 〈뉴턴 상, 블레이크를 따라서(Statue of Newton)〉, 1993. 브론즈, 런던 국립도서관.

하지만 블레이크의 독창적인 신화 속에서 그는 기독교적인 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성과 법칙을 상징하는 우리젠(Urizen)을 가리킨다. 우리젠은 보통 수염이 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주를 창조하고 통제하는 건축가의 도구를 들고 있다. 블레이크가 창조한 우리젠은 성경과 밀턴의 〈실낙원〉, 블레이크 자신의 환영, 그리고 중세의 필사본 삽화에 등장한 창조주의 모습이 뒤섞인 복잡한 인물이다. 그는 블레이크의 판화 뿐 아니라 여러 시 작품에도 등장하고, 상상력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은유하는 인물들과 함께 또 다른 세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블레이크는 뉴턴의 업적을 칭송하고자 마치 창조주처럼 뉴턴을 묘사했을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블레이크는 세상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보고자 한 뉴턴에 비판적이었다. 그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뉴턴은 등을 구부정하게 한 채, 고개를 숙여 자신이 그린 도형 이외의 것은 보지 않고 있다. 해초로 뒤덮인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있는 그의 주변에는 아무 것도,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깊은 어두운 바다 속에 홀로 앉아 그는 단순한 도형에 몇 개에 몰입해 있다. 그의 주변에는 신이 창조한 자연이 가득하지만 뉴턴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이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과학 법칙이라는 틀에 가두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술은 생명의 나무이고, 과학은 죽음의 나무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 블레이크는 이 작품을 통해 뉴턴, 더 나아가 뉴턴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과학 맹신주의를 비판한다.

블레이크가 〈뉴턴〉을 제작한지 200여년이 지난 20세기 말, 이를 재해석한 파올로치의 조각상 〈뉴턴〉이 영국 국립도서관 입구 광장에 설치되었다. 블레이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한 사건을 겪은 뒤,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근대 초기의 이성과 상상의 대립과 갈등은 이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글_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IV)

1845년 10월 드레스덴 궁정극장에서 <탄호이저>를 초연한 이래 1849년 드레스덴 혁명 때까지 바그너는 여기서 여러 오페라를 지휘하였다. 또한 바하의 모데트, 르네상스 음악의 거장 팔레스트리나 곡들을 지휘하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듣기 힘든 작품들이었고 청중들에게서도 호평을 얻게 된다. 이런 공연들이 바그너 작품에 끼친 영향은 이후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첫 장면 루터교 찬송가 대목이나 <파르지팔> 곳곳에 배치된 합창 등에서 엿볼 수 있다. 1848년 <로엔그린>을 완성하지만 초연은 1850년에 이루어진다.

1848년 바그너가 집필한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색을 드러내는 책자와 <독일국립극장 조직에 관한 안> 등의 발표는 드레스덴 궁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 무정부주의자인 혁명가 미하엘 바쿠닌과의 교류로 인해 바그너의 글들이 점점 선동적이 되어간다. 1849년 드레스덴 혁명이 일어나고 바그너는 이 혁명에 적극 가담했으나 혁명은 실패로 끝난다. 바그너의 친구 바쿠닌은 체포되었고, 바그너에게도 체포장이 발부된다. 극적으로 탈출한 바그너는 바이마르에서 궁정악장으로 일하던 리스트를 찾아간다. 하지만 작센 지방 뿐 아니라 독일 연방에 머무르는 것이 신변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리스트의 권유에 따라 스위스 취리히로 건너간다. 이때부터 10여 년간 바그너의 망명생활이 시작된다,



이 시기 바그너는 다시한번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자신의 재기를 꿈꾸며(리스트의 충고도 한 몫 함) 파리로 건너간다.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대장장이 빌란트 Wieland der Schmied>라는 작품을 구상하면서 파리에서 올릴 계획이었지만 당시 파리의 공연계 상황은 그러한 작품을 올릴 시장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시기 파리에서의 수확은 바그너 음악에 심취한 두명의 여성 후원자, 율리 리터(Julie Ritter 1794~1869)와 제시 로소(Jessie Laussot 1829~1905)를 만난 일이고, 제시 로소와는 연인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

부유한 영국 상인의 젊은 아내인 제시 로소(Jessie Laussot 1829~1905)와 관계가 깊어질 즈음 그녀의 남편이 눈치 채고 드레스덴 정부에서 지명수배 당하고 있는 혁명분자 바그너가 파리에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바그너는 취리히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율리 리터는 1859년까지 바그너를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낸다.

1850년 바이마르에서 <로엔그린>이 리스트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지만 바그너는 입국이 불허되어 이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다. <로엔그린>:3막으로 만들어진 낭만적 오페라는 음악의 형식상 이 작품에서부터 거의 바그너

독창적인 악극형식이 확립된다. 관현악을 확장 시켜 풍부하고 화려한 음향을 구사한다. 극과 음악의 관계를 긴밀히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기 동떨어진 아리아, 레치타티보, 앙상블 등을 삽입하지 않는다. 음악에 유도동기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주제를 통일감 있게 나타낸다.

〈로엔그린〉 첫 공연을 위해 리스트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바이마르에서 초연에는 유럽의 많은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공연 자체의 성과는 비록 〈리엔치〉의 성공 정도는 안되었지만 리스트에 의하면 ‘비교적 만족할 만한’이라고 했고, 바그너의 정치적인악명에 의해 오히려 이 공연은 주목 받았다. 〈로엔그린〉이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리스트의 역할이 지대하다. 취리히 시절에는 〈미래의 예술작품〉(1849), 〈오페라와 드라마〉, 〈나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보고서〉(1851)등의 바그너의 유명한 글들이 탄생한다. 특히 에세이〈오페라와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그너의 이후 작품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주요한 글이 실려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아름답고 우아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노래가 아닌,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소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종류의 노래 선율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음악적 유도동기가 전달하려는 사상과 감정은 극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게된다. 이렇게 음악적 유도동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굳이 가수들의 노래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고, 오케스트라만으로도 극의 전개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로써 오페라에서 관현악의 역할은 단순히 반주 음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극의 전개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확대된다.

특정 장면에 특정 유도동기를 환기시킴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존 오페라가 기존 극에다가 음악 자체의 패턴과 구조를 덮어씌운 것과는 달리 바그너는 극의 흐름과 사상을 뒷받침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 음악이 드라마와 결합을 한 것이다. 바그너 오페라의 ‘유도동기’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는 글이다.

또한 관현악의 역할이 고대그리스 비극에서 합창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페라를 음악극이라고 부르게된다. 초기 오페라부터 〈로엔그린〉까지를 스스로 낭만적 오페라라고 칭했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후를 음악극으로 분류한다.

1850년~1851년 즈음 아직 실제 작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그프리트의 죽음(신들의 황혼 전신)〉을 스케치하면서 그 내용의 필요성에 의해 결국 4부작으로 확대시키는 큰 밑그림이 그려진다.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의 즉위 소식을 듣고 프랑스 혁명정신이 좌절되었음을 알고는 무

척 낙담한 바그너에게 귀한 인연이 등장한다. 1852년 오토 베젠동크(1815~1896)와 마틸데 베젠동크(1828~1902)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1853년 〈반지〉 대부분을 완성하여 소책자로 출간하고 바그너 자신이 직접 낭독회도 가진다. 취리히에서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4차례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공연을 하여 호평을 받게 된다. 또한 자신의 오페라 작품에서 관현악 부분을 발췌하여 연주하여 자신의 대담한 관현악 기법을 청중들에게 시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1854년 바그너는 쇼펜하우어 철학을 접하게 된다. 음악이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문필에도 능한 19세기 독일의 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바그너 창작에 큰 영향과 도움을 주게 된다. 같은 해 〈라인의 황금〉을 완성한다. 베젠동크 부부와는 날로 가까워진다. 오토는 만프랑 이라는 천문학적인 바그너의 부채를 갚아주고 다른 여러 신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바그너를 지원하였다. 부인 마틸데는 젊고 총명, 아름답고 예술적 감수성도 뛰어나면서 바그너 음악의 열렬한 숭배자였다.

1856년 〈발퀴레〉 작곡 완성하면서 고국에 무대에 대한 갈망으로 바그너는 작센 왕에게 자신의 죄를 사면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사면은 거절되고 여전히 망명자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같은 해 〈지크프리트〉 작곡에 착수하게 된다.

1857년 베젠동크 부부가 바그너를 위해 취리히 근교 자신들의 옆집에 마련해준 거처로 이사한다. ‘아쉴(Asyl)’이라고 바그너 자신이 명명한 이 집에서 〈파르지팔〉을 처음으로 구상하게되고, 마틸데와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다.

클.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마음의 힐링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지난해 가을, 클래식 뉴스 중 단연 나의 눈길을 끌었던 건 중국 출신의 두 스타 피아니스트 윤디와 랑랑의 내한 공연 소식이었다. 감미롭고 단아한 피아니즘의 윤디, 터프하고 화려한 기교를 선사하는 랑랑의 공연 자체도 기대가 됐지만 당시는 10여년 했던 클래식 프로그램을 놓고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적응하는 시기라 무엇보다 일상공간을 떠나 문화적 힐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 같다. 마침 윤디와 랑랑의 공연이 한 달여 시간차로 열렸고 일단 잘 정리되면 서울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람과는 달리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해 울산 시향의 공연으로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첼리스트 조영창, 피아니스트 백건우, 백혜선 등과 함께하는 훌륭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지만 공연 몇 개 못 본 걸 보면 당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였는지도 모른다.

늘상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생활하며 책을 읽고 공연 보고 원고를 쓰며 방송을 하다 어느새 시사에 초점을 맞춰 뉴스 스크랩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원고를 쓰는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마음의 힐링이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차안에서 음악 듣기였고, 특히 내 마음을 끈 레퍼토리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였다. 길지 않은 출퇴근길이지만 볼륨을 한껏 높여 듣는 베토벤의 선율은

마음에 쏘옥 와 닿았다. 서정적이고 따뜻한 선율에선 편안함을, 운명에 맞서려는 듯한 힘찬 선율에선 삶의 에너지를, 또 숨죽이듯 속삭이는 선율에선 베토벤 특유의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차속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최적의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루 3,40분 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느꼈던 편안함과 행복감은 생각보다 컸다. 그것이 바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보여주는 위대함이 아닐까 싶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에게는 32곡의 피아노 소나타가 있다. 그의 나이 26살에 작곡한 1번부터 52살에 작곡한 32번까지, 그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순차적으로 듣다보면 베토벤의 인생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평생에 걸쳐 쓴 소나타라 그런지 베토벤의 음악적인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고전파와 낭만파의 다리를 잇는 음악사적인 베토벤의 역할도 선율 속에서 감지된다. 초기 작품에선 고전적인 느낌이 강하다가 뒤 작품으로 갈수록 낭만적인 요소들이 많아지고 특히 28번 이후의 마지막 다섯 작품에선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먼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라 그런지 음악적으로도 난해하고 테크닉적으로도 상당히 까다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 거기다 작품마다 전해지는 감성이 다 달라서 들을 때마다 감탄을 했고 32곡을 작곡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감성을 부여한 베토벤에게 매일 반했다.

그의 평탄치 않았던 가족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거다. 베토벤은 능수능란한 테크닉과 멋진 즉흥연주로 8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지만 술주정꾼 아버지의 일상적인 구타 속에서 돈벌이를 해야 했다. 남들 보기엔 피아니스트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명성만큼이나 귀족들이 그의 후원자로 나서는 등 그의 상황이 나빠 보이진 않았겠지만 가장으로서 두 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 찾아든 귓병 악화는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20대 후반부터는 귓속의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고 하니 그런 사실을 숨기며 생활해야 했던 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를 보면 제자 줄리에타가 나온다. 그녀는 그의 소나타 '월광'을 탄생시킨 영감의 주인공이지만 그의 귓병을 이유로 다른 백작과 결혼을 해버렸다. 물론 신



분상의 차이도 걸림돌이었겠지만 안 그래도 귓병 악화로 소리를 잃어가는 상황에 힘들었을 베토벤에게 그녀의 행동은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그래서 그는 1802년 가을,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쓰게 되는데 베토벤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이전보다 더욱 작곡에 매진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창작 의지를 불태우며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건, 그의 선율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월광'을 듣다보면 호수에 비친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서정적으로 표현되다가 마지막 3악장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강렬히 휘몰아치고 다시 조용히 찾아든다. 나는 이것이 꼭 베토벤 마음 같다. 운명의 굴레 속에서 평온하려 애쓰다 불현듯 울컥 올라오는 서글픔에 울부짖고 다시 평온을 찾는 것이 혼란스런 베토벤 마음같이 느껴졌다. 우리에게 친숙한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17번 '템페스트', 21번 '발트슈타인', 23번 '열정'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같은 이 피아노 소나타 속에 담겨진 그의 뜨거운 내면을 공유하며 삶에 대한 의지, 열정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토벤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전부 들어보길 권한다. 베토벤 음악의 원천이 피아노 음악 아닌가. 음악가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청각 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의 치열한 예술혼을 그의 피아노 소나타로 제대로 느껴보고 나면 왠지 한걸음 더 베토벤 음악세계에 다가서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글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Performances

제47회 처용문화제 (월드뮤직페스티벌)

일 시 | 10. 3(목)~10. 6(일)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공원 일대
입장료 | 무료
주 최 |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 공연개요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처용문화제,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과 개발 및 처용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처용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작품내용
- 월드뮤직페스티벌
-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제12회 울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0. 8(화) 20: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울산가톨릭합창단

■ 공연개요
- 성음악의 대가인 구노의 장엄미사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여 성음악을 알리고자 함

■ 작품내용
- 아름다운 성가 특송곡 (Ave Maria, 장미의 기도)
- 한국가곡 '사랑의 테마'
- 찬미가(Laudate Dominum, Te Deum)
- 구노 장엄 미사

제33회 울산예술제 서막축하공연

일 시 | 10.10(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개요
제33회 울산예술제 개막선언 및 축하공연

■ 작품내용
- 1부 : 서막식 개최
- 2부 : 축하공연

뮤즈스트링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일 시 | 10.11(금) 20: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뮤즈스트링 앙상블

■ 공연개요
지역 음악인들이 모여 10월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을음악회를 개최

■ 작품내용
- 하늘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왈츠 2번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1악장
- 인디에나 존스
- 캐리비안의 해적 등

제7회 국악연주단 민들레 정기연주회 "동락"

일 시 | 10.13(일)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국악연주단 민들레

■ 공연개요
국악실내악의 성악곡과 기악곡을 창작하여 참신한 공연양식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음악의 발전적인 모습을 관객과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만든 공연

■ 작품내용
- 관현악(바람)
- 민들레 2013 위촉곡 (고래여행)
- 해금협주곡(적념)
- 국악가요(임진강)
- 가요(나 항상 그대를)
- 퓨전 실내악(훈의 소리) 등

제33회 울산예술제 "울산팍스오케스트라 빅밴드연주회"

일 시 | 10.13(일)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개요
제33회 울산예술제 중 연예예술인협회 주관공연으로 울산팍스오케스트라 빅밴드의 팝, 재즈, 영화음악, 국악, 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연주곡을 소개

■ 작품내용
- Opening
- st. Louis blues march
- Misty
- For Swingin' dancers
- Sunrise sunset
- Watermelon man 등

제2회 울산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0.15(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태화강합창단

■ 공연개요
실버세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적극적 사회봉사 참여를 목표로 창단된 울산 태화강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작품내용
- 내 마음의 강물, 가고파

- 그리운 마음, 메기의 추억, 서른 즈음에
- 서생배꽃, 학성공원에서, 동백섬
- 항해,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얼굴 등

제16회 시낭송축제 "시를 품은 울산, 12경을 노래하다"

일 시 | 10.15(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재능시낭송협회 울산지회

■ 공연개요
재능시낭송협회 창립 2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울산의 역사와 함께 울산의 풍경을 해설이 있는 시낭송과 함께 시 퍼포먼스, 시노래 등으로 공연

■ 작품내용
- 살고 싶은 울산
- 바다 사랑
- 행복 속으로
- 추억 속으로
- 달는 시 등

안녕, 아카펠라

일 시 | 10.16(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아카펠라 교육연구회

■ 공연개요
아카펠라 교육 연구회 회원들의 정기 공연으로 아카펠라 곡을 중심으로 공연

■ 작품내용
- 반달
- I sing you
- 상젤리제 등 다수

영음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17(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천마성악회

■ 공연개요
VERDI탄생 200주년을 맞아 베르디의 주옥 같은 중창곡들을 발채하여 연주

■ 작품내용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하여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이중창, 삼중창, 육중창 등 쉽게 듣기 힘든 중창곡을 모아 연주

"공감"울산시민과 불교신도회와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일 시 | 10.18(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 공연개요

울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향수어린 추억을 회상하고 신명나는 문화축제의 마당으로 불교합창단과 초청 공연팀이 함께 하는 공연

■ 작품내용

- 사물놀이, B보이, 남성 성악 앙상블
- 불교합창단 7팀
- 이앤아이(E&I)앙상블, 붓다여성앙상블
- 합창(출연팀 전체)

울산 CBS창립9주년 기념공연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 집시앙상블 내한공연”

일 시 | 10.19(토)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 CBS

■ 공연내용

울산 CBS 창립9주년기념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 집시앙상블” 팀의 내한공연으로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 특히 한국가곡 등의 음악을 연주

■ 작품내용

- 닥터지바고
- 물도바
- 검은눈동자
- 러시아 랩소디
- 헝가리무곡
- 타이타닉 주제곡 등

제9회 사랑의 플룻콘서트

일 시 | 10.20(일)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 50,000/S · 30,000/A · 10,000

주 최 | 울산플룻파이어

■ 공연내용

스마일뮤직그룹과 울산플룻파이어가 함께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선음악회

남구구립교향악단 10월 정기연주회

일 시 | 10.22(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남구구립교향악단

■ 공연내용

-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합창곡 등을 연주

■ 작품내용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제33회 울산예술제 “제28회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일 시 | 10.22(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무용협회 회원들이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

■ 작품내용

- 한량무
- 태평무
- 기분좋은날, 검무
- 기다림, 기백

제33회 울산예술제연주회 “한국 가곡의 밤”

일 시 | 10.23(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음악협회 주관 공연

■ 작품내용

- 앙상블 연주
- 피아노 협연
- 성악 협연
- 합창단 연주
- 오케스트라 연주

제33회 울산예술제 “제18회 가을밤 문학축제”

일 시 | 10.25(금)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문인협회 주관으로 시와 음악, 그리고 영상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시 낭송 공연

■ 작품내용

- 시와 영상의 만남(낭송)
- 시와 가곡의 만남
- 시와 재즈의 만남
- 시 노래

청소년문화존 폐막축제

일 시 | 10.26(토) 16: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공업탐청소년 문화의집

■ 공연내용

2013 울산청소년문화존의 성공적인 폐막을 알리는 축제

■ 작품내용

- 관현악단 식전공연
- 청소년문화존 동아리지원사업 축하공연

제33회 울산예술제 연극협회 합동공연

일 시 | 10.27(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5,000원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연극협회 회원들의 합동공연

제33회 울산예술제 “국악의 밤”

일 시 | 10.29(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국악협회 주관 공연으로 국악 관현악 창작곡 및 울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연주

■ 작품내용

- 고구려의 혼
- 신화
- 아름다운 인생 II
- 울산아리랑/꽃
- 창과 관현악을 위한 “비람아! 완산칠봉 바람아!”
- B-Boy와 풍물을 위한 창작 관현악 “상쇠”

창작현대음악의 밤

일 시 | 10.31(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작곡가협회

■ 공연내용

전자음악과 기존 악기의 결합된 음악, 영상과 음악과의 결합, 무용과 음악과의 결합 등 음악과 타 예술과의 만남으로 청중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무대예술을 나타내고자 함

■ 작품내용

- 전자음악과 영상을 위한 환희
- 무(舞)
- 무용가 함께하는 음악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울림” 외 3곡

Exhibition

제5회 창작미술인협회전

기 간 | 10. 2(수)~10. 7(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창작미술인협회

■ 전시내용
창작미술인협회의 제5회 정기회원전으로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총 35점 전시

제2회 생활공예 전시회

기 간 | 10. 2(수)~10. 7(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생활공예모임

■ 전시내용
생활공예모임의 제2회 정기회원전으로, 전통 조각보와 세라믹 페인팅, 포크아트 등 총 150점 전시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기 간 | 10. 2(수)~10. 7(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일요화가회

■ 전시내용
울산일요화가회의 정기회원전으로 독특한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서양화 작품 40점 전시

<제33회 울산예술제>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기 간 | 10. 10(목)~10. 15(화), 6일간
장 소 | 제1, 3, 4전시장
주 최 | 울산예술연합회

■ 전시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사진전으로 울산사진작가협회의 창작 사진작품 170점 전시

<제33회 울산예술제> 울산예총 기획전

기 간 | 10. 10(목)~10. 15(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울산예총연합회

■ 전시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미술전으로 원로 예술인들의 문학, 미술작품과 예술수석을 접목한 설치미술 40점 전시

<제33회 울산예술제> 울산미술협회 회원전

기 간 | 10. 17(목)~10. 22(화), 6일간
장 소 | 제1, 2, 3, 4전시장
주 최 | 울산예총연합회

■ 전시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미술전으로 울산미술협회 회원들의 미술작품 300점 전시

<제33회 울산예술제> 울산건축가협회 회원전

기 간 | 10. 24(목)~10. 29(화), 6일간
장 소 | 제1, 2전시장
주 최 | 울산예총연합회

■ 전시내용
제33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건축전으로 울산건축가협회 회원들의 건축 작품 100점 전시

제16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

기 간 | 10. 26(토)~10. 29(화), 4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건축가협회

■ 전시내용
울산 및 인근지역의 건축가들의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대전으로 주니어와 시

니어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 접수하며, 입상작품 180여점 전시

류희수 사진전

기 간 | 10. 24(목)~10. 29(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개인 (류희수)

■ 전시내용
자연은 고독한 인간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표현한 사진작품 총 70점 전시

제41회 울산서도회전

기 간 | 10. 31(목)~11. 5(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서도회

■ 전시내용
제41회 울산서도회 회원전으로 한문, 한글, 문인화 등 다양한 서예작품 60점 전시

울산부산포항 연합사진 교류전

기 간 | 10. 31(목)~11. 5(화), 6일간
장 소 | 제2, 3전시장
주 최 | 뉴비전 아트센터

■ 전시내용
울산/뉴비전, 부산/포토부산, 포항/포미 회원들의 연합 교류 전시로 풍경, 인물 등 다양한 사진작품 80점 전시

제14회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회원전

기 간 | 10. 31(목)~11. 5(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 전시내용
'내 마음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회원들의 마음 속에 그려오던 이미지를 표출한 사진작품 40점 전시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비상 당신의 기대에 걸맞습니다.
당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 특별한 예술
가운데에서 행복하셨으면
은신모아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4인가족)	가족회원 (4인가족)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시 30% 할인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혜택 부여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시립교향악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드보르 작 교향곡 8번

2013. **10. 31**(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